



국립극단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 제작과정의 기록

탄소발자국 절감편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 사전워크숍 NO. 1 (3월 11일)

[토론] 기후위기와 나:  
나의 삶에서 기후위기는 어떻게 감각되는가?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공공극장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첫 출발인 작품을 시작하며, 도서 『파란하늘 빨간지구』를 읽고 모인 첫 자리에서 개개인의 기후위기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고, 박지선 에코드라마투르그의 국내외 예술적 대응 사례에 관한 강연을 통해 본 연극 작업의 결을 찾아 나서는 첫 번째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 중 개별 소회 공유]

- ◆ 작년 폭염으로 34년 만에 처음 에어컨을 설치했다. 살다 보면 내가 중요해져서 잊어버린다, 환경을 위하는 마음을, 그 정도의 감각이었다. 도서 『파란하늘 빨간지구』를 읽고나서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최근 정치적인 싸움이나 갈등 등을 많이 겪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고 깨달았다.
- ◆ 개인적인 관심으로 작년부터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sup>1)</sup>'를 실천해보고자 했다. 그러나 '조금 웨이스트'로 약간의 타협을 보고 실천하고 있다.
- ◆ 처음 국립극단 연습실에 방문했을 때, 일회용품 사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종이컵을 아예 구비 해주지 않고 예비로 머그컵 몇 개만 배치한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러나 대부분이 종이컵이 없다는 말에 "그럼 내일부터 컵 들고 다녀야겠네", 라고 하시더라. 인식의 변화는 환경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움직임을 함께 겪으며 조금의 실천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위한 노력이 되리라 생각한다.

1) 쓰레기 배출을 '0(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

- ◆ 책에서 '날씨는 기본인데 기후는 사람 자체의 인성이다'라는 구절을 보고 인상 깊었다. 책을 읽으면서 기후 문제는 환경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윤리적인 문제라고 쓰여있는 걸 보고 알아차렸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피해자는 따로 있구나, 환경 문제는 윤리적인 가치관과 도덕적인 문제가 된다. 책을 읽으며 나 하나의 작은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나 하나가 바꿀 수 있을까 해서 안 하게 되는 그 생각이 윤리성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번 작품을 통해 각성하고 나 하나라도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 ◆ 비건(Vegan)<sup>2)</sup>을 4년째 하고 있는데, 동물이 죽는 걸 보는 게 마음이 아팠다. 동물이 불쌍해서기 보다, 나만의 비폭력 운동이었다. 비폭력 운동의 처음 시작이 채식이었다. 무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육식을 하더라도 이 밥상이 나한테 오는 경로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 같았다.



기후위기에 대한 개인의 감각 나누기

2) 비건(Vegan)은 고기나 유제품을 포함한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채식주의이다. 비건이 등장하기 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인 베지테리언(Vegetarian)이 먼저 등장하였는데 비건은 라이프스타일로 확장하여 동물의 가죽이나 털, 실험 등으로 활용된 제품까지도 지양한다.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모두 다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각,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도, 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이지 않고 죄책감을 지니게 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비건 ‘마을’이 있고 열려있는 곳이어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닫혀있고 비난하면 들리지 않는다. 죄책감이 들지 않게 이 문제를 설득하게 하는 방법이 ‘예술’의 언어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문제에서 무감각하게 넘겼던 말들이 수면 위로 떠 오르게 되는 등, 진통의 과정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다. 이 진통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의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본 주제에 대한 대화의 방법을 공연이 끝날 때까지 찾아 나서면 좋겠다. 기후위기를 예술가로서 집중하게 되면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할지, 서로를 관찰해보며 나눠보자.

❖ 프로덕션 내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을 고민해보고, 우리만의 룰과 비전을 만들어보자.

##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 연습 NO. 1 (3월 16일)

### [토론] 기후위기에 관한 강연과 친환경 제작 방법론 논의

연습 초반 회차에는 기후위기에 관한 배경지식을 공부하기 위해 『파란하늘 빨간 지구』의 저자 조천호 대기과학자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의 강연이 포함된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을 공부하고 기후위기를 둘러싼 불평등한 현실을 정치적, 심리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기도 하였다. 이후 프로덕션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친환경 제작 방법론을 고안하는 토의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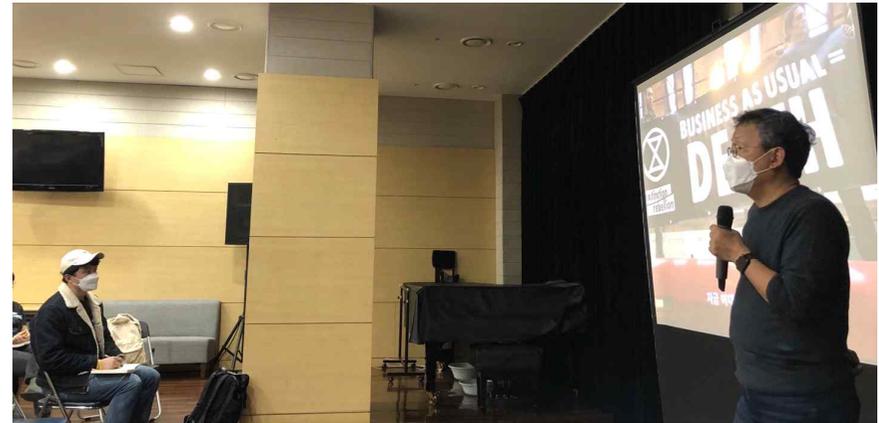
#### ① 기후위기에 관한 강연을 듣고

- ◆ 기후위기가 감수성이 천차만별일 것이고, 이해하고 있는 이해력이 다를 거고. 그럼에도 너무 도덕적이고 정직해서 예술로 얘기하기에 재미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 수치나 정보 전달이 아닌 '감정이나 정서'를 전달하는 것 같았다. 이성적으로 느끼게 된 것을 어떻게 정서로 전환할 수 있을지, 무대에서 감각의 차원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 확실한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희망을 품고 가고 있다는 것에 힘을 받았다. 저는 기후 문해력<sup>3)</sup>이라는 단어가 영감을 많이 불러일으켰다. 우리 안에서 기후 문해력을 키우고 전달할 수 있을지 키워내고 싶다. 우리가 서 있게 된 좌표를 증언해내는 과정이 될 것 같다.
- ◆ 연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비교적 연대와 가까운 것 같다. 우리의 예술적 연대를 통해, 공연을 통해 우리는 어떤 성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성과를

3) 기후변화를 읽어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어떻게 규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든다.

- ◆ 변화해야 하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기후 위기가 단순히 지구의 문제만이 아닌 인간과 그 미래세대를 향한 문제임을 깨달았다.



조천호 기후과학자의 초청 강연



강연을 듣는 프로덕션 인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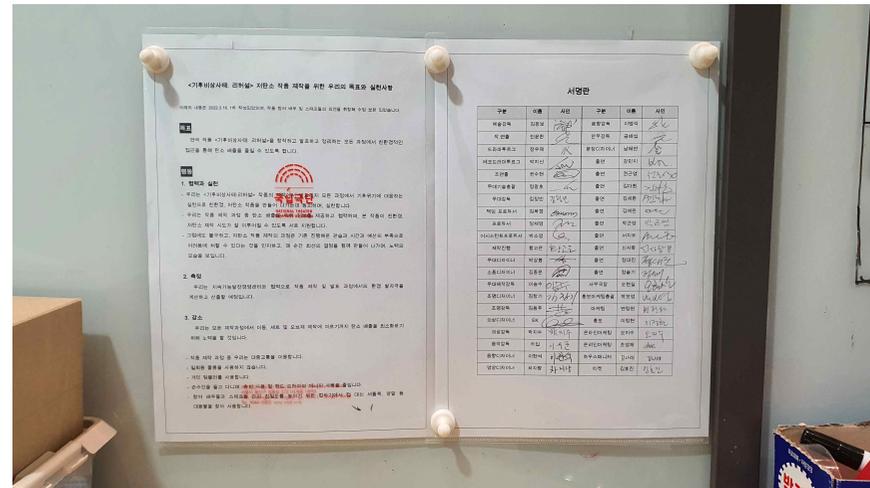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② 저탄소 작품 제작을 위한 우리의 목표와 실천사항**

- 연극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하고 정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접근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목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천사항을 작성했다. 작품에 참여하는 배우 및 스태프들의 의견을 취합해 수정하고 보완하여 발표하였으며, 국립극단 직원들을 포함해 모든 프로덕션 참여자가 동참하는 의미로 서명하였다.
- 일회용 컵이 없는 연습실을 만들기 위해 컵 차기 놀이 시 '셔틀콕'을 활용하기, 제작 방식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기, 채식 지향해보기 등 연습실에서나 공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천사항부터 개인적인 고민까지 고려하여 담아냈다.
- 작품 전 제작 과정에서 수합된 정보와 고민, 노하우, 실패 사례는 추후 예술 현장에 공유하여 친환경 제작을 기반으로 한 제작 환경을 구축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 본 목표와 실천사항과 더불어 동참의 서명이 담긴 자료를 연습실과 공연장에서 눈에 띄도록 상시 배치해두었다.



연습실에 부착된 약속문



명동예술극장 분장실에 부착된 약속문

##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 연습 NO. 2 (3월 17일)

### [프로덕션]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SDMI)와의 협업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SDMI)<sup>4)</sup>와 협업하여 공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sup>5)</sup>을 측정하고, 하나의 목표를 세워 계획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하며 센터 임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우선, 기존 국내 타 공연 프로덕션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센터 내에서는 그 파악 기간을 일주일 정도 소요 예정으로 보고, 기존과 대비해 본 프로덕션에서 어느 정도 탄소배출량을 감소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계산하려 했다.

- ❖ 그러나 현재(2022.03.17. 기준)까지 국내 공연 제작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할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기준치 자체가 없는 상태라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없었다.
- ❖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본 프로덕션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 오고 가며 활용한 교통수단, 연습 중 식사 시간에 섭취한 식단 등을 공유하고, 이를 센터에서 수치화하기 위한 세세한 측정 방법을 나누고 공유했다.

4) 국가는 물론 각 경제주체들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정책연구, 경영컨설팅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의 국제협력과 실현을 위한 교육, 출판 및 홍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사람의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 소비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말하며, 개인 또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와의 토론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SDMI)와 함께 공연 제작부터 관람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산정해 추후 공연계 탄소발자국 절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 ❖ 이번 작업을 통해 친환경 작품을 만들자는 목표뿐만 아니라, 예술 환경의 변화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

◎ 연습 NO. 4 (3월 21일)

### [토론] 기후위기를 감각하고 불평등을 체감하기

기후 연극을 준비하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직접 감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위기와 현존하는 상황에서 느끼게 된 불평등에 대하여 체감해본다.

#### ① 기후위기의 티핑포인트 7년, 현실감이나 위험이 느껴지는지

- ◆ 내 삶은 와닿았지 않았으나, 얼마 전 조카의 방문으로 와닿았다. 이 아이의 성장 이후가 관찰을지.
- ◆ 한국에서 숨쉬기 어려운 경험을 해볼 줄 몰랐다. 타국에서 비행기에 내리는 순간 숨을 못 쉬어서 힘들었는데, 이를 한국에서 동일하게 경험할 줄 몰랐다.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온 순간, 그 이후로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② 기후위기에 대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느낀 순간이 있을지, 최근 발생한 우리나라 산불을 보며 체감하거나 혹은 기후 재난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지

- ◆ 고성에 산불이 났을 때 실제로 고성을 가고 있었다. 가는 고속도로에서 불이 차 위로 휩싸이고 있었다 자주 가는 길에서 불을 보니 정말 재난 같았다. 동승자와 어떤 토론을 나누진 못했지만 감정적으로 크게 다가왔던 순간이었다. 재난 앞에서 말이 없어지고 숙연해지는 순간이었다.
- ◆ 패스트푸드점에서 양상추가 떨어져서 커피 쿠폰을 준 적이 있다. 그때는 쿠폰을 받아서 좋았는데, 기후위기에 대해 알고 나니 큰 문제라고 느꼈다. 도시에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었다.

- ◆ 일상에 피해를 느껴지는 감각이 없으면 재난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는 대부분 국내의 서울 관객이 다수일 거고 우리의 감각과 비슷할 텐데 어떻게 와닿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작가인 나도 감각하지 못하는 것을 써 내려간다는 것이 거짓말 같이 느껴졌다. 배우들은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준비할 수 있을지, 이 불안함이 작업의 핵심일 것 같다. 준비 안 된 의제가 밀어닥친 것, 예술가로서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정책 기반이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할 것 같다. 거짓말 아닌 이야기를 위하여, 관객들도 체감하기 위하여.

“갑작스러운 한파로 양상추 수급이 불안정하여 양상추가 평소보다 적게, 혹은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용) M사 패스트푸드점의 양상추 수급 문제 관련 안내문 발췌

#### ③ 기후위기와 관련한 시각 및 영상 자료를 보고 체감한 적이 있는지

- ◆ 환경스페셜 음식물 쓰레기 편<sup>6)</sup>을 관람했다. 자원에만 영향을 주는 줄 알았는데, 자연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몰랐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 ◆ ‘기후위기비상행동<sup>7)</sup>’을 다녀오고 나서도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 여러 영상을 수집하였다. 새만금 신공항 반대 시위,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회견 영상 등과 함께 직접 체험한 자료들이 있어 이를 공유하고 함께 시청하면 좋겠다.

6) KBS 환경스페셜 38회 <먹다 버릴 지구는 없다>, 2022년 3월 10일 KBS 2TV 방영

7)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종교 등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하는 기후운동 기구이다.

##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 ④ 친환경과 불평등

- ◆ 기후위기는 연결성이 중요하다. 안무가 ‘제롬 벨’은 해외투어 공연을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해외 공연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해외 공연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게 상대적 박탈감이 들었다. 불평등하다고 느꼈다. 더불어 서구 열강 국가들이 탄소중립국으로 간다고 발언하는 게, 개발도상국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 같았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sup>8)</sup>’에서 인도가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만들지 못한다고, 2070년까지 50% 감축해보겠다고 이야기했다. 중국도 2050년까지는 못 만든다고 발언했다. 두 나라에서 배출하는 탄소 발자국은 굉장한데, 역계산 해보면 인도와 중국에 세운 공장의 나라들은 잘사는 나라들이다. 타국의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만들어도 탄소는 중국세로 돌아간다. 굉장히 불평등한 감각으로 느껴졌다.
- ◆ 내가 살 만하니까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았다. 인간에게 여유라는 관점이 생겨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건가, 내가 가진 사람일 수 있겠다는 좌절감과 우울감이 느껴졌다.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는 그런 소비를 지양하라고 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고민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니, 스스로가 우습다고 느껴졌다.
- ◆ 각자 위치에서 감각 하려는 좌표에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 같다. 개발도상국 쪽에서 기후위기를 논하는 연극은 보지 못했다.
- ◆ 우리나라는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는 대표 가해자 국가이다. 그러한 좌표 안에서 고민해할 것 같다.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 ‘탄소중립(Net-Zero)<sup>9)</sup>’

8)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에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명에 기여한다.

9)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 0(Zero)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이다.

으로 향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국내 기업에서는 인도 어딘가 원자력 화석 발전소를 지으러 간다.

- ◆ ‘위장 환경주의(Green Washing)<sup>10)</sup>’, 우리나라에도 있다. 개인의 차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질문이 들기도 한다. 개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기업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도서 『기후변화 심리학』에서는 개인에게 갖게 하는 딜레마도 정책의 일환이라고 한다. 개인의 문제로 넘기면 나 스스로만 보게 된다. 우리 생활 안에서만 실천하자고 해도 어렵다. 더 큰 담론으로 이끌지 못하는 정의이다.
- ◆ 우리 관객 대상이 대통령, 국회의원, 기업 사장들이 아니지 않는가. 이걸 보는 관객들은 개인이지 않을까. 지금 논점대로라면 개인의 도덕보다 더 넓혀야 하는데, 사실 관객은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앞선 워크숍에서 들은 강연에서 들은 기후위기를 둘러싼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새로운 인식의 변화로 나아갔다. 변화해야 하는 움직임의 필요성과 더불어, 기후가 단순히 지구의 문제만이 아닌 인간과 그 미래세대를 향한 문제임을 여실히 느꼈다. 기후위기를 둘러싼 끝없는 담론을 이어갔다.

10)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기업이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축소시키고 재활용 등의 일부 과정만을 부각시켜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 연습 NO. 5 (3월 22일)

**[프로덕션] 컵 차기 놀이**

연극 작업을 시작하기 전, 친목 도모를 위한 컵 차기 놀이를 한다. 기존 컵 차기는 종이컵을 활용한다. 우리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새 종이컵 대신 다른 시도를 궁리했다.

- ◆ 처음 종이컵의 대체는 ‘양말 차기’였다. 집에서 양말을 가져와 동글게 말고, 너무 가벼운 것 같으면 안에 지우개 같은 것을 넣었다. 여러 번 주고받기가 어려운 편이었으나 10여 분간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 ◆ 그러나 양말로 했을 경우 계속 차기가 어려워 새로이 집에서 사용하던 셔틀콕을 들고 왔다. 셔틀콕은 훨씬 효과적이고 오래 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 ◆ 컵 차기에 활용하는 양말, 인형, 셔틀콕은 새로 구매하지 않고 프로덕션 내 인원이 직접 사용하던 것을 제공하였다.
- ◆ 다른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한 종이컵은 컵 차기에 활용하기 위해 각자 가져와 씻어 재활용하였다.
- ◆ 이는 공연 중 무대 위 장면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무대 위에서 사용된 종이컵도 모두 재활용된 소품으로 활용했다.



종이컵 차기 놀이 중인 배우들과 연출부



재활용하기 위해 연습실 구석에서 건조 중인 종이컵 더미

◎ 연습 NO. 7 (3월 24일)

### [토론] 기후위기를 연극으로 이야기하기

본 프로덕션은 기후위기에 대해 말하기 위해 쓰인 대본을 꾸준히 읽어가고 있다. 대본 속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토론하였다. 이 이야기를 연극으로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나눴고, 배우들이 어떤 연기를 할 수 있을지 토론하였다.

#### ①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

- ◆ 관객이 한 장면만 가져가도,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 기후위기는 먼 나라 이야기 같고, 피부로 와닿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이야기로 풀고 싶다.
- ◆ 기후위기를 감각하는 것은 타인을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의 최종적인 관문이라 판단된다. 그래서 나같이 감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후위기를 이야기할까에 대한 자책감이 강했었다.
- ◆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만난 청소년 활동가들과 함께 감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싶고 궁금하다. 어린 세대일수록 기후 우울증이 강하다고 한다. 오히려 어린 나이의 사람들이 더 환경에 대한 감각을 크게 적용되어 성장하고 있다. 일상의 감각으로.
- ◆ 활동가들은 관심을 받기 위한 퍼포먼스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예술가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 우리 연습실에서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 ② 기후위기에 관한 글을 쓰면서

- ◆ 일찍이 행동했어야 하는데, 왜 도서관에 책 쌓아놓고 고민하고 글이 써지지 않는다고 기다렸던 걸까 후회했다. 현장 나가니 그 고민이 우스워졌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언문을 읽으면서 울었던 것 같다. 첫날 환경운동을 끝내고 비건 음식을 준비하지 못해 어떤 활동가분은 화가 나셨었고, 체감되지 않는다는 말에 울음이 터지셨던 사람이 했던 말들에 민망했었다.
- ◆ 기후위기는 인류 대부분에게 준비되지 않은 주제이고, 갑자기 찾아왔으나 이는 해내야 하는 생존의 문제이다. 그린시대로 흘러가야 하는데, 모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트릴 것이다. 갑자기 기업에서 그린 마케팅을 펼쳐야 하는 것처럼, 예술도 기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 왜 연극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개인의 정서’ 때문이다. 매체는 정서를 이야기하지 않기에, 이를 감각하는 정서를 말하고자 했다. 기후위기의 지향점은 연결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각각의 개인으로 단절되지 않고, 비인간과 모든 시스템과 불평등은 연결되어 있다. 현재, 이 연결된 감각이 끊어진 곳이 ‘극장’이라는 매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연결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매체도 극장, ‘연극’이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 ◆ 내 이야기가 되기 어려운 것. 직접 발언하며 생기는 내 언어, 발언 전까지는 체감할 수 없다. 기후의 번역가가 되어야 한다는 조언. 자기 언어, 자기 발화가 중요하다. 그러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

#### ③ 기후위기를 직접 느끼며 행동하는 것

- ◆ 과거에 기후위기 활동을 하며 편견이 있었음을 깨달았어서 관련 포럼을 가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다. 굉장히 정치적이고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달랐다.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 ◆ 우리도 직접 기후변화 운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 서울역 같은 곳에서 피켓 들고 직접 행동하며 느끼면 좋을 것 같다. 페이크 식이라도 좋다.

④ 배우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연기를 할 수 있을까

- ◆ 기후위기를 발화하는 배우의 입장에서, 배우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기 위해 배우의 '개인의 수행성'과 '연기'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기후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개인의 수행성을 이야기하였다면, 다음으로 '연기'에 집중해 '경제적인 연기'가 무엇인지 토론하였다.
- ◆ 불필요한 동선과 등 퇴장을 줄이자. 행동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땀을 내지 않으면 샤워를 덜 해도 된다. 땀이 덜 보이는 의상이나 통풍이 잘되는 의상을 채택해보자. 첫날 분장을 강하게 하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 분장을 지우지 않는 웃긴 방법도 있다.
- ◆ 자본주의가 싫어할 것 같은 것을 해보자. 쓸데없고 도움 되지 않는 것을 한다. 공동체를 만들고 연대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자본에 반하는 걸 행하는 것. 이는 기존 연극과 비슷하다.
- ◆ 또는 자본주의를 반하지 않고 반항해볼 수 있다. 오히려 느린 것보다 너무 빠르게 하면 어떨까. 언어를 몽개서 몸으로 이해하게 하거나 동물의 언어로 바꾸거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어 통역을 통역사가 하지 않고 배우들이 배워서 해보거나.
- ◆ 사용하는 모든 쓰레기를 공연 마지막 날까지 가지고 다니고, 극장에도 들고 다니기. 지구는 Reset 하지 못하는데 공연은 Reset이 된다. 나도 Reset 하지 않는다면. 나는 똑같이 연기를 하지만, 내 주변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유튜브나 쇼츠 콘텐츠가 많아지고, 긴 것들을 귀찮아하는 세상에 비워지고 느린 감

각을 해볼까. '거대한 가속'인 기후위기는 '느린 폭력'으로도 불린다고 한다.

- ◆ 라이브 성이 '지금 이 순간' 발생하는 것을 다 함께 목격하는 것이다. 현장성을 '지금 이 순간' 떠올리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대단한 실수나 빈틈.
- ◆ 티켓 예매할 때 객석을 선택할 때부터 관객들이 자신의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티켓 좌석 등급 별로 다른 연기를 보여줄 수 있겠다.

나조차 감각하지 못하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감각하여 무대 위로 올릴 수 있을까. 느껴지지 않는다면,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자. 연결되지 않은 감각을 다시 연결해서 이어 나갈 수 있는 극장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작가는 대본을 쓰면서 100년 후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100년 후 극장이 있을까 상상하며 글을 썼고, 누구인지 모르는 미래의 관객을 가정하고 써내었다. 100년 후에 과연 극장이 살아남아 있을까?

##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 연습 NO. 12 (4월 1일)

### [제작] 스태프들의 탄소절감 방안 제안

기후위기 시대의 연극을 구성하는 제작 과정은 어떻게. 어떤 연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품었던 연습실에서처럼, 제작 과정에서 또한 여러 고민을 나누어보았다. 탄소절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 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아래는 제작 과정에서 스태프들이 초반부터 스스로 고민한 내용으로 <Chapter 1>에서 소개한 실천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 무대

-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무대디자인은(웃음) 최대한 새로운 자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제작을 하지 않고 국립극단 대도구실에서 보유한 것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화약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고 도색도 하지 않으며, 전기 드릴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클램프를 활용한다. 잘 잡아두면 피스보다 더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어 시도해보고자 한다.
- 무대디자인의 콘셉트가 대략적으로 공개되고, 제작 방식에 대해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극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도구만 활용하는 목표를 세웠다. 배우들과 함께 대도구 및 소품을 이동해, 연습실에서 대도구를 모두 나열해보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 조명

- 조명디자인의 이번 목표는 백열등 조명을 30% 줄이는 공연으로 선보이는 것이다.
- LED 조명을 활용하면 전기를 덜 사용할 수 있어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보다 효율성

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연 관람 환경 자체 조도를 낮추거나 한다고 무조건 '기후연극'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무조건 리사이클을 하거나 최소한의 소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창작자들에게 제한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음악·음향

- 에너지를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선까지 절약해야 할지 고민이다. 관객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설득하는 게, 전력을 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어떤 식의 조율이 필요할지 해답을 찾고 있다.
- 전력은 안 쓰는 스피커들은 전원을 끄고, 공간의 소리가 확장하는 순간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등 의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배터리'로만 운영할 수 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려우나 운영은 가능해 극장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후위기 관련한 음악을 엮어서 관련 서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화력발전소를 방문하는 등 실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 영상

- 영상디자인에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접한 '매체'에서 보이는 기후위기 이미지를 그대로 쓰기보다, 전체적인 영상의 톤을 맞춰서 드러내고자 한다.

㉤ 의상

- 의상디자인은 결과적인 것만 보여줘야 하는 무대 위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고민이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상이 있다면 어떤 의상을 입어야 할지, 리사이클링 해야 할지. 먼저 국립극단 의상실에서 시작해서 개인의 옷장까지 뻗어가려 한다. 국립극단 의상실에 다 함께 가서 필요한 의상을 찾아오는 과정을 진행하려 한다. 또한 세탁을 해야 할 경우 친환경 식물성 세제로 세탁을 고려 중이다.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① 분장

- ◆ 가스가 들어있지 않은 친환경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 화장품을 알아보고 있다.

⑨ 수어통역

- ◆ 수어통역사와 이야기하는 배우가 얼마나 가까이 붙어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통역사에게 별개의 조명을 비출지 결정된다. 미리 장면 구성 과정에서 배우와 통역사가 서로 가려지지 않는 공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통역사가 배우로부터 떨어진 공간에 위치하게 되면 조명을 추가로 잡아야 한다.

탄소절감을 위한 작은 시도와 노력, 작품을 준비하며 작가뿐만 아닌 참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고민 속 각자 어떤 정서의 전환이 있었는지 무대 위에서 이야기하려 한다.

❖ 기존 제작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이고 낯선 방식이기에 각 파트 별 끊임 없는 고민과 여러 생각이 필요했다.

##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 ◎ 홍보 촬영일

#### [홍보·마케팅] 홍보 영상 및 사진 촬영 과정에서의 노력

홍보·마케팅을 위한 영상 및 사진 촬영 과정에서도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계획하고, 콘셉트 안 및 타임 테이블을 준비하였다. 아래는 홍보 촬영일에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실천된 세부사항들이다.

- ◆ 이동 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본래 계획되어 있던 연습 일정을 연출가와 상의하여 사전 취소하였다. 또한 별개의 촬영 스튜디오로 이동하지 않고 명동예술극장에서 촬영을 준비하여 직후 바로 귀가할 수 있었다.
- ◆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나 흰색의 자유로운 상의와 같이 개인이 보유할만한 기본적인 의상을 활용했고, 개별 분장을 진행하여 당일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준비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헤어 분장 시에는 가스가 들어있지 않은 친환경 스프레이를 활용해 헤어 세팅을 진행했다.
- ◆ 이동 인원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탄소발자국을 지양하기 위해, 어시스턴트 혹은 크루 인원 없이 의상·분장디자이너 본인만 참여하였다.
- ◆ 촬영장에서 섭취한 다과는 재생 용지 포장 종이와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가 포함된 친환경 포장 형태이며, 비건 도넛으로 준비되었다. 또한 실제 배부된 보틀을 다수의 배우들이 연습실과 공연장에서 꾸준히 재사용하였다.
- ◆ 모든 부착 및 배포하기 위한 출력물은 이면지 종이를 활용했다.



명동예술극장 무대 위에서의 촬영



비건 음식과 재활용 가능한 보틀

온라인으로 진행 된 배우 대상의 '예술가와의 대화'와 국립극단 홍보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9기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 촬영 과정에서도 탄소절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 ◆ 공연 주간에 촬영 일정이 계획되어 촬영 장소로 인한 이동으로 추가적인 탄소발자국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두 콘텐츠 모두 극장 아래의 지하 연습실에서 촬영을 진행하여 이동에 따른 추가적인 탄소발자국 발생을 막았다.
- ◆ 홍보 서포터즈 촬영의 경우, 콘텐츠 기획 과정에서 필요한 게임 및 벌칙 소품을 새로 구매하지 않고 국립극단 소품실에서 대여하여 준비하였다.



지하 연습실에서의 촬영



영상물에 표시된 환경 관련 메시지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 연습 NO. 17 (4월 8일)

**[프로덕션] 공연 제작 기간의 탄소발자국 산정**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SDMI)와 함께 공연계 탄소발자국 절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탄소배출량 측정을 시작하였다. 측정 방법으로는 과정 전반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배출량을 계산하고 개인의 탄소배출량을 조사하며, 연습실과 공연장 내에서 배출되는 전기 및 난방 사용량 등을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더하면 전체 총 탄소발자국 발생량이 계산된다. 자세한 내용은 <Chapter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리허설(3/16-5/10)	②공연 중(5/11-6/5)	③폐기물 처리(6/6-6/30)
-----------------	-----------------	-------------------

- ◆ 공연 제작 기간은 세 단계로 구분하고, 주요 배출원인 전력 사용과 공연진의 통근 및 관객의 이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집중한다.
- ◆ ①리허설 단계는 2주(4/12-4/25) 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8주간의 전체 기간동안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한다.

① 폐기물 배출량 측정

- ◆ 공연 전반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 총 두 종류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사용되는 생수통의 용량과 개수도 함께 기록한다.
- ◆ 일반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의 부피 및 개수로 계산하며, 재활용 폐기물은 무게를 측정해 작성된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한다.

❖ 매일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양이 굉장히 적고,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가 적

절하지 않아 매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쓰레기를 축적해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3일에 1회씩만 측정하기로 하였고 매일 비워지는 쓰레기통을 고려하여 관련 협조문을 부착하였다.

- ◆ ②공연 중 단계에서 명동예술극장 건물 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폐기물의 데이터는 공연기간이 종료된 후, 국립극단 시설관리팀의 협조를 받아 일괄 취합하여 제공한다.
- ◆ ③폐기물 처리 단계에서는 기존 국립극단에서 공연이 종료된 후 사용된 제작물의 재사용/폐기 여부를 검토해 작성하는 무대/소품 관련 ‘공연물품 활용계획(안)’과 ‘공연물품 활용 분류표’ 두 문서를 참조한다.
- ◆ 공연물품(무대장치, 대도구, 소품) 중 신규 구입, 제작하지 않고 극단 보유품을 재활용하여 공연에 사용한 ‘재활용 비율’과, 재활용의 가능성이 있어 폐기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는 ‘보관 비율’, 재활용이 불가하여 폐기하는 ‘재활용 불가 비율’로 나누어 공연 이후 물품 활용 및 폐기 계획을 마련한다.
- ◆ 이후 공연종료 14일 내 이루어지는 폐기 기간을 참고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한다.



연습실에서의 탄소배출량 측정 설문조사

[공연 단계] 공연진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SDMI)입니다.  
공연 진행하시는 날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약 1분 소요됩니다.

\* 필수항목

각성자 분의 성함과 소속을 기입해주세요.\*  
\* 예) 홍길동, 배우

내 답변

1. 출근 시 이용하는 교통 수단을 선택해주세요.

도보 및 자전거 (단위: 분)\*  
\*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0 선택 / 소요시간 해당 항목 선택

0  
 1-5

탄소배출량 측정 설문조사 내용 일부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② ①리허설 및 ②공연 중 단계에서 탄소배출량 측정 설문조사

- ◆ 프로덕션 참여자 및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탄소발자국 및 배출량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 ①리허설 단계에서는 연습실에 방문하고 생활하는 모든 인원 대상의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국립극단 직원의 경우, 본 공연을 위해서 연습실에 방문하는 인원으로 한정하였다.
- ◆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프로덕션에서 탄소중립을 시도하기 전, 기존 일상에서의 탄소발자국 및 배출량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동일한 설문 내용으로 조사하여 기존 배출량과 탄소중립을 시도하고 있는 ①리허설 단계의 탄소발자국 및 배출량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 ◆ ②공연 중 단계에는 전체 프로덕션 인원과 극장 인원, 그리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는 관객들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한다. 매일 방문하는 진행스태프와 티켓, 하우스 안내원까지 포함하여 조사를 시행하며, 관객이 해당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출발지에서 극장까지 이용한 교통수단 및 소요 시간까지 수집한다.
- ◆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의 QR코드를 분장실 곳곳에 부착하고 극장 로비 모니터에 설정하여 접근성을 높였으며, 예매자들에게는 관련 문자를 발송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 본 설문조사는 공연 기간(총 23회차) 동안 빠짐없이 진행되었다.

③ 기타 탄소배출량 측정

- ◆ 연습시간 동안 연습실 내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연습장소 및 연습 소요 시간 동안의 탄소배출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실내 조명 사용량을 측정하고, 적정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별개의 음향 및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수치화해서 보고했다.
- ◆ 전력·수도·냉난방의 경우 월별 고지서를 제출하고, 극장 설비자료를 제공하였다.



공연 중 분장실에서의 탄소배출량 측정 설문조사



명동예술극장 로비 스크린의 관객 대상 탄소배출량 측정 설문조사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 연습 NO. 23 (4월 16일)

[제작] 대도구 및 소품 준비

최대한 국립극단에서 보유한 자재와 대도구를 활용하려는 무대디자이너의 실천 목표에 따라, 연습 도중 국립극단 대도구실과 소품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 재활용해서 쓸만한 가구들을 고르고, 각자에게 의미 있는 소품들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 ◆ 무대디자이너와 동행하여 무대디자인 콘셉트에 적합한 대도구를 추가로 선별하고 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타 지역에 위치한 국립극단 대도구실에 무대디자이너와 국립극단 담당 감독이 두 차례 동행해 살펴본 후 연습실로 이동했다.

❖ 기존 대도구를 재활용함으로써 탄소발자국을 절감하고자 하였으나, 이동 운반을 위해 5톤 트럭을 이용했다. 향후 세트 재활용 시 운반에 따른 탄소발자국을 고민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 ◆ 먼지로 뒤덮여 지저분한 대도구들도 많았으나, 배우들과 함께 직접 걸레로 먼지와 얼룩을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연습을 이행하며 필요한 소품과 불필요한 소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담당 감독님과 함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추가 대여 및 반납을 지속하며 최대한 기존 소품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 ◆ 소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 구매한 품목 중, 예상했던 형태와 상이한 소품이 있었다. 그러나 높은 가격대로 새롭게 구매하기에 예산 문제도 있고, 새 제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그대로 활용하였다. 이는 연출가와 소품디자이너가 타협하여 결정하였다.



국립극단 대도구실에서 직접 대도구와 소품을 옮기는 프로덕션 인원



재사용되는 대형 가구의 먼지와 얼룩을 제거하는 과정

##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 연습 NO. 35 (5월 2일)

### [제작] 의상 선택 및 준비

최대한의 사입을 자제하고 국립극단 의상실과 배우나 스태프가 보유한 개인 의복을 활용하는 의상디자이너의 목표에 따라, 의상 피팅부터 공연 중 의상 관리까지 모든 인원의 노력으로 진행되었다.

- ◆ 초반 의상 콘셉트가 지정되기 전, 국립극단 의상실에서 배우들이 입고 싶은 의상을 직접 고르고 가져왔다. 가져온 의상들은 초반부 가의상으로 활용하였다.
- ◆ 1차 의상 피팅 당일, 의상디자이너가 준비한 콘셉트에 맞춰 국립극단 의상실과 개인 의상을 함께 조화롭게 입어 보고 배치해보았다. 대부분의 의상을 재활용하고 개인 의상을 착용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었다. 오히려 개인의 의상이 적합한 경우도 있어 사입 제품이 많지 않았다.
- ◆ 전체 인원의 기본 의상 색상을 가장 흔하게 보유하는 '검은색'으로 통일하여, 쉽게 보유할 수 있는 의상으로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국립극단 의상실을 찾은 배우들

##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 ◎ 연습 기간

#### [프로덕션] 연습 기간의 탄소발자국 절감을 위한 노력

연습 기간 동안의 연습실이나 제작 파트에서 탄소발자국 절감을 위한 노력을 담았다. 함께 작성한 약속문을 기반으로 사소하지만 다양한 시도를 위해 노력했다.

- ◆ 최소한의 종이 인쇄를 위해 연습실에서 직접 대본을 들고 움직여야 하는 배우와 연출부에만 인쇄 대본을 제공하고, 디자인 스태프들에게는 합의 하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워터마크가 설정된 파일화된 대본을 제공하였다.
- ◆ 추후 최종 대본을 준비할 때는 배우들과 연출부와의 합의 하에 스프링 제본하지 않은 양면 인쇄본으로 제공하였다. (진행 스태프들에게는 기존 인쇄 방법으로 동일하게 제공하였다.) 또한 제본 여부를 전원 확인하여 추가 제본을 진행하지 않은 인원도 있었다.
- ◆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활용해 파일을 공유하고, 환경 관련 업체 및 참고 지식을 서로 간 공유한다. 또한 연습실 내 부착한 프로덕션 관련 안내사항이 담긴 출력물은 극장에서도 계속 활용하여 재출력하지 않는다.

❖ 파일 공유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인쇄를 진행하게 될 경우, 되도록 한 장 이내 (2페이지 이상일 시 양면)로 편집하고 잉크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편집하였다. 또한 한글 원본 파일로 출력했을 시보다 PDF로 변환한 후 출력하는 것이 잉크 소모에 절약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작업 시 참고하였다.

- ◆ 물티슈를 구매해야 할 경우 물에 녹는 물티슈를 구매하지는 배우의 의견이 있어, 물에 녹는 물티슈와 친환경 휴지로 구매해 배치하였다.

❖ 되도록 손수건을 지향하자고 약속하였으나,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최소화의 휴지 및 물티슈를 구비해두었다.

- ◆ 4월 22일 지구의 날<sup>11)</sup>을 맞이하여 국립극단에서는 환경 관련 관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이를 주최하기 위해 프로덕션 인원들의 사소한 노력을 이행하는 참여 사진들을 수집하였다.
- ◆ 지구의 날에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소등 행사에 연습실 또한 참여하였다. 오후 8시부터 10분간 전등을 모두 끄고 연습을 진행했다. 전등을 켜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연습을 이어갔으며 어두운 상태에서도 필요한 회의를 진행했다.



저탄소 식단 도시락



통근 시 자전거를 이용

11)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 환경보호의 날

◎ 공연 NO. 5 (5월 15일)

### [프로덕션] 예술가와의 대화

작품의 창작진과 주요 출연진 위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공연 프로덕션의 ‘예술가와의 대화’와 다르게, 본 작품의 취지와 주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와 예술’이라는 중심 주제를 선정해 작/연출가와 에코드라마투르그, 조천호 기후과학자가 참석하였다. 또한 관객들 중 배우나 연기, 장면 등에 대한 질문을 대비하여, 사전에 배우들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함을 알렸다. 결과적으로 이번 예술가와의 대화에서는 작품과 기후위기를 함께 나누며 본 주제 의식에 집중할 수 있는 긴밀한 대화로 구성되었다.

- ◆ 작품이 쓰여지게 된 의도,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이 섞여있는 이유 등 작품의 내용에 관한 질문도 많았으나 실제 ‘제작 환경’에 대한 궁금증도 준비했다. 무대의 세트와 의상들이 모두 재활용된 것인지, 실제 배우들이나 참여진들이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수집하고 있는 프로덕션과 관객의 이동과 관련한 데이터의 활용 관련하여 목표나 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 ◆ 현장에 기후과학자가 참석하였기에 과학적 사실들에 관한 질문도 다수였는데, 그 중에서도 기후위기를 감각하기 전 단계이기에 그 방법론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고 실제 현재의 기후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극적인 토론도 이어졌다.

### 주요 질의응답 내용

1) 국내에서는 생소한 포지션인 '에코드라마투르그'의 역할과 수행

(박지선 에코드라마투르그)

“해외에서는 오늘날 기후 문제 같은 주제를 이야기할 때, 주제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들과 관계 맺을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작품을 제작하면서도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에코드라마투르그라는 용어를 사용해보면서, 이게 시작이 되어서 연극이나 공연예술계에 친환경적인 제작이나 환경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비인간에 대한 서사들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의 중요한 역할로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2) 기후위기에 예술의 역할과 힘

(조천호 기후과학자)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감각에 둔감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더 감각적이고,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역할로 예술이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역할 중의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만질 수 있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 보이지는 않지만 닥쳐진 위기에 대해 예술이 가진 시도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인식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인류의 역사에서 이제껏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위험에만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도 극복할 수 있다는 방면에서 인류사적으로 도약의 기회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술이 가진 커다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예술을 수용하는 관객들은 이를 통해 어떻게 인식해야하고 반응해야 할지.

우리도 행동가가 될 수 있거나 관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는지

(조천호 기후과학자)

“사람마다 각자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류 전체가 우리가 위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태는 다 다르지만, 어느 연극 속에서도 마지막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비정규직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위기’이다 하는 것은 굉장한 과잉 속 불평등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 등장했던 모든 생물들의 99.9%는 멸종하며 끝났습니다. 인간이 그렇지 않을 것이고 영원하다는 건 말이 안 되며 멸종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화 <Don't look up>의 마지막에는 인간이 멸종하고 이 세상이 망하며 끝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고 연대하는

##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것에 인간의 궁극적인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행동으로 돌아가거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연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 4) 기후위기를 말하는 예술이라고, 그 의미가 명확하고 유의미하다면

모든 것들이 탄소배출하며 생산되어도 괜찮은가

(박지선 에코드라마투르크)

“차라리 나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지구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또한 지금 이 예술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 활동가분들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직면한 우리 위기들에 관하여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사실(fact)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활동가 선생님들은 최전선에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예술가들은 관객과 직접 만나며 감정적인 상실의 문제나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술가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예술가와 또 다른 세상을 구상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연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작의 방식에 있어서도 아주 적은 에너지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국의 ‘케이티 미첼’이라는 연출가는 자전거 발전만 이용해서 연극을 만듭니다. 모든 작품에 그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 보여주는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며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5) 왜 연극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전윤환 작·연출)

“저는 극장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불특정 다수가 모여 약 1-2시간 동안 온전히 같은 무엇을 듣고 보고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같은 감각을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급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국립극단에서 처음으로 큰 새로운 제작을 하려는 용기도 있었고, 저도 이 극장에 서고 싶었던 것들이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장이 광장이 되는 작품을 연극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답에 대하여) ‘광장’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말씀 중 하나가 ‘규모나 파급력을 떠나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극을 보고 진중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광장같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지만 시도 자체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대답에 대하여) 아까 연출님께서 극장이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연극이 무엇을 해야할까. 연극을 처음 시작했던 그리스처럼, 관객과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주시는 관객분들이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 공연 NO. 18 (5월 30일)

**[프로덕션] 배리어프리 공연과 탄소배출량의 관계**

국립극단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연장의 물리적, 제도적 장벽 없이 누구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공연을 준비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탄소절감을 위해 제작·소비 비용 절감으로 절약된 제작비로 배리어프리 공연의 회차를 추가하였다. 23회차 중 3회차 동안 한글자막, 음성해설, 한국수어통역을 동시 운영하는 배리어프리 회차를 운영하며, 이 외에도 관람 편의를 돕기 위해 매주 월·금요일에는 한글자막을, 목·일요일에는 영문자막을 고정적으로 운영하였다.

- ◆ 배리어프리 회차를 운영하며 탄소절감을 위한 노력과 상충되는 지점이 존재했으며,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요소가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 ◆ 음성해설, 한국수어통역, 한글·영문자막을 운영한 본 공연을 기준으로, 운영 방법에 따른 추가적인 탄소 배출 관련 이슈를 기록하였다.

음성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해설은 기기를 사용하는 '폐쇄형 음성해설'로, 회차당 50~60대가 공연장에 상시 준비되었다.</li> <li>◆ 1~2층의 모든 객석에서 수신할 수 있는 'FM 수신기' 장비를 마련하고 안테나를 연결해 계속해서 송신하도록 했으며, 전문 내레이터가 실시간으로 무대를 보며 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해설 'FM 수신기'의 경우 건전지를 사용하다보니 배리어프리 3회차의 기간동안 다량의 전지가 사용되고 폐기되었다. 또한 현재의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다보니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이어폰을 매일 소독하고 새롭게 비닐 포장하는 작업을 하여 추가 폐기물이 발생하였다.</li> </ul>

한국수어통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어통역은 수어통역사 2명이 무대에 직접 등장하여 공연 형식과 동선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수어통역을 선보였다.</li> <li>◆ 배리어프리 회차를 위해 몇가지 조명 큐를 보완했으며, 추가적인 리허설이 필요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필요한 조명사용을 줄이기 위해 수어통역사들이 배우와 한 조명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동선을 구상했으나 최소한의 추가적인 조명 사용은 불가피했다.</li> </ul>

한글·영문자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영문자막은 무대 밖으로 양 옆에 설치되어있는 두 대의 대형모니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막기로 공연 내내 실시간으로 운영된 두 대의 대형 모니터는 전력을 사용하여 탄소절감과는 상충되는 지점이 있었다.</li> </ul>

- ❖ 배리어프리 회차 운영에 대한 일별 계산 자료를 취합하기 어려워, 유의미한 전기 사용량 변화를 정확한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었다.
- ❖ 폭넓은 관람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청각 자료 및 기기 장치들을 다수 활용하고, 배리어프리를 준비하는 과정과 시행하는 과정에는 전문 인력이 동행하여야 했다. 따라서 장비 운용자, 내레이션 담당자, 수어통역사 등 다수의 인원이 추가로 극장과 연습실에 방문함에 따라 개개인의 탄소발자국도 함께 증감했다.

공연의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해 시도하고 절약하는 제작 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배리어프리 공연 회차를 늘릴 수는 있었지만 배리어프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탄소배출을 고려하기는 어려웠다.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과 지구 환경을 위한 탄소절감 사이의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 ③ 종연 간담회

- ◆ 마지막 공연을 맞이하여 간소하게 프로덕션 인원 간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비건 식단을 고려하여 콩고기 음식을 함께 준비하였다.

❖ 비건 식단을 고려하기 위해 적절한 메뉴를 찾는 과정에서, 12)최근 비건 식당 선택지가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업체에서 동시에 충족하는 조건이 없어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주문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 심지어 먼 지역에서 배달만 가능한 업체가 최선이었기에, 육류를 제외하고 비건식을 존중하려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탄소배출을 감수하게 되었다.

- ◆ 비건 식단을 처음 접하는 인원이 많아, 논비건 음식이 준비되었음에도 비건 식단을 시도해보기를 원하는 인원도 있었다.
- ◆ 기존 국립극단 공연에서는 종연일을 맞이할 시 단체 기념사진을 인쇄하여 종이 액자와 함께 제공하였으나, 종이 액자를 생략하고 사진만 배포하였다. 추가적인 인쇄 작업 및 폐기물을 축약하기 위해서이며, 이전에 사진 인쇄를 온전히 생략하는 방안도 고안되기도 하였다.

12) 지난 2020년 국내 대표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메뉴 카테고리에 '채식'이 신설되었고, 최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채식주의가 소비 트렌드로 등장하였다.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 공연 기간

**[프로덕션] 공연 기간의 탄소발자국 절감을 위한 노력**

공연 기간 동안의 프로덕션 인원 및 개인이 노력한 모습들을 담았다. 탄소발자국 축정을 위한 동참의 행동과 더불어 사소하게라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 분장진행 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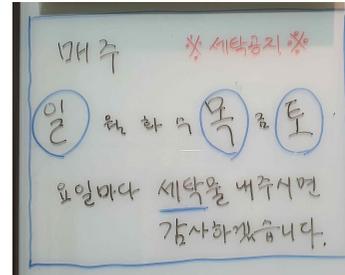
- ◆ 공연 및 리허설 기간 동안 분장 파트의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분장사 1명이 15분 동안의 제한 시간을 두어 운용한다.
- ◆ 인원을 감축하는 대신 분장 시간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 ❖ 분장사가 1명이기에 공연 중 배우의 극장 방문 시간이 이른 시간으로 앞당겨졌고, 분장사 또한 한 명의 인원의 다인원의 배우를 빠른 시간 내로 준비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배우들에게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며 함께 동참하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회차를 진행하면서 분장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극장 방문 시간을 조금씩 늦추며 진행해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 ❖ 이처럼 인원을 감축하여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방안은 많은 고려사항도 발생하며 여러 인원의 타협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였다.

㉢ 의상진행 파트

- ◆ 공연 중 '착용하는 의상'의 세탁을 매일 진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텀을 두고 진행하도록 결정하였다.
- ◆ 목/토/일의 공연 종료 후 세탁 및 건조를 진행한다. 일주일 중 공연이 없는 날인

화요일을 고려하여 정한 요일로, 평일에는 최대 2회차까지 착용 후 세탁하게 되어 청결에 크게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장실에 명시된 세탁 관련 공지



코로나-19 예방과 의상 관리를 위해 세탁 대신 잦은 소독을 진행

㉢ 분장실

- ◆ 매일같이 방문하는 분장실에서도 사소한 노력은 이어졌다. 연습실에서처럼 텀블러와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손수건을 사용한다. 여전히 도시락을 싸오는 인원들도 많았다.



다회용컵 사용



손수건 사용

**붙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제작과정의 기록**

- ◆ 초여름부터 시작된 공연은 무더운 여름이 올 때쯤까지 진행되었는데, 장면에 따라 뛰거나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면들이 있음에도 분장실에서 에어컨을 한 회차도 가동하지 않았다.
- ◆ 대신 더위를 많이 타는 인원들은 각자 부채를 들고 다니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다.



분장실에서의 부채 사용



시연간담회에서 배부한 수저 세트로 비건식 섭취

*지구 시계 마지막 60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삶에 가까이 있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기후위기'를 화두 하는 작품을 준비하며, 공연을 제작하고 관람하는 과정까지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위기하고 있었다.

처음 글을 쓰고 창작진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던 고민은 연습실과 공연장을 넘나들며 공연이 종료된 이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공연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더불어, 제작 과정에서부터 탄소절감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전체 공연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절감을 위한 노력과 당시 실천 사항들이 기록된 '기후노트'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저탄소 제작방식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시작된 발돋움의 무대예술 분야뿐만 아닌 전 예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사례로 남기를 바란다.